

이것이 복지행정

전남도, 오늘 해남서 100번째 공중목욕장 개장

사람을 감동시키는 행정이란 무엇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목욕탕이 없는 마을에 예산을 들여 공중목욕탕을 만든다 지역 노인들이 건강을 찾고 행복해 했다. 마을 부녀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목욕탕으로 모셔 등을 밀어주며, 사라져가는 공동체의 훈훈한 모습을 되살려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2006년부터 314억원을 들여 목욕시설이 없는 농어촌 127개면에 공중목욕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이 지역에 목욕탕이 한 곳도 없는 면이 70%에 달하자, 고된 농사일로 지친 농어촌 노인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마

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지만 왕복걸기 등 체력측정과 혈중 중성지방 검사에서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겨 난 목욕탕은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다. 외로움을 달래줄 말벗을 찾고,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

나주시 산포면 부녀회원들은 노인들의 편안한 목욕탕 나들이를 위해 자신의 차를 동원하고, 등을 밀어주는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면사무소에서도 건강체조와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목욕탕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

전남도 해양수산국 박준영 차장은 “복지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 있고 지역민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중목욕탕 사업은 노인 건강과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7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영암군 금정면의 공중목욕장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는 등 전남도의 목욕탕 사업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장날목욕탕’ 사업을 도입해 전국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보성 '계단식 차밭'



신안 '갯벌 염전'

전남도 중요 농어업유산 7곳 전국 첫 지정

구례 산수유 시목지, 보성 계단식 차밭, 담양 대나무 숲, 신안 갯벌염전, 화순 붓도랑과 다랭이논, 무안 회산백련지, 영광 염전..

이름만 들어도 정겨운 전남의 농촌과 어촌 풍경이 전남도 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돼 보존된다.

전남도는 23일 사라져가는 전통농어업 자원을 발굴,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7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12개 군으로부터 13개소 유산 자원의 지정 신청을 받아 지난 19일 전남도 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례 '산수유 시목지'를 제1호로 지정하는 등 7개 농어업유산 자원을 최종 선정했다.

보성 '계단식 차밭'과 담양 '대나무 숲'이 2호와 3호로 지정됐으며 4호는 신안 '갯벌 염전', 5호는 화순 '붓도랑과 다랭이논', 6호는 무안 '회산백련지', 7호는 영광 '염전'이다. 농어업유산이란 오랜 기간 동안 보

- 1 구례 '산수유 시목지'
- 2 보성 '계단식 차밭'
- 3 담양 '대나무 숲'
- 4 신안 '갯벌 염전'
- 5 화순 '붓도랑과 다랭이논'
- 6 무안 '회산백련지'
- 7 영광 '염전'

전·전승 할 가치가 있는 전통농어업 활동과 농어촌 경관 등 모든 농업 산물을 말한다. 지정된 전남도 중요농어업유산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해 보존되며, 단계적으로는 세계중요농어업

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도내 산재한 다양한 농어업유산 자원을 발굴해 이를 보전·전승하고 지역 축제와 농촌관광과 연계할 계획이다. 전남도 임영주 농림식품국장은 “유산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 6차 산업화해 부가가치를 창출, 국민소득

국가유산·세계유산 추진 가치활용 소득증대로 연계

증대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중요농어업유산제도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2002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다. 일본 사도카시마 따오기 농법 등 11개국 25개소 지정됐고, 한국은 청산도 구들장 등의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외로운 시골노인들에 활기와 행복 선물

체력향상 등 건강 도움... 정부도 벤치마킹

거창한 구호와 화려하게 치장된 일부 지방자치단체 정책과는 사뭇 다른 전남도의 공중목욕장 조성 사업이 시행 7년 만에 100번째 개장식을 갖는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생활밀착형 우수 행정'으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접 현지로 파견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전남도는 오는 24일 해남군 북평면에 100번째 공중목욕장을 개장한다. 개장식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영록 국회의원,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박철환 해남군수 등이 참석해 목욕탕의 '첫 영업'을 축

련된 사업이다. 박준영 전남지사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됐지만 지역민의 반응이 좋아 전남도가 해마다 예산을 늘려가며 목욕탕을 만들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마땅히 몸을 씻을 곳이 없었던 지역에 목욕탕이 생겨나자 노인들의 얼굴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다.

또 지난 2011년과 2013년 2회에 걸쳐 주민 건강증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목욕탕이 생긴 뒤 노인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목욕탕이 생긴 뒤 서로 안부를 묻고, 등을 밀어주며 따뜻한 체온

꽃시장 “U대회는 흑자대회... 흑색선전 막아야”

강운태 광주시장이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를 흑자대회라고 주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강 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확대 간부회의에서 “U대회가 적자대회라거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라서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등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며 U대회 흑자대회를 펼쳤다.

강 시장은 “특정인들이 TV토론회 등에 출연해 전남도의 'F1 대회'는 2000억원 정도만 적자가 났는데, U대회는 이미 4000억원이 넘는 적자

가 났다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광주의 브랜드 가치 상승, 관광객 유치, 선수·임원 숙박 및 쇼핑 등 부수적인 효과를 빼더라도 U대회는 흑자대회”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U대회의 시 예산은 4300억원 정도이며, 국비와 스포츠 토토 기금 등이 보태져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국제 테니스장, 양궁장, 진입 도로 등을 건설하기 때문에 시비보다 400억원이나 많은 4700억원대의 순자산이 (광주에) 남게 된다”면서 “여기에 시비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1000억원 정도를 경감하는 방안을 현재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과 최종 논의하고 있으며, 스포츠 유치 때까지 감안하면 흑자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U대회는 전일 박근혜 광주시장이 두 번의 도전 끝에 유치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는 대회”라면서 “이런 값진 대회를 함부로 폄하해선 안되며, 특히 광주시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이사진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문화단체 촉구... 정면 비난

광주지역 문화단체들이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연임 추천을 결정한 이사회를 정면으로 비난하면서 이사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과 지역문화 교류포럼재단은 23일 논평을 통해 “광주시의 거수기를 자칭한 광주문화재단 이사회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광주시 문화행정으로 인해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주문화재단 이사회가 현 대표이사의 연임과 2기 이사

진을 추천하면서 1기 이사 전원을 포함한 것은 도의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재단의 조타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이사회가 광주시의 거수기를 자칭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 재단의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사회가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바꾸려는 노력 없이 2기 이사진 추천에 본인들을 포함시킨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이사회 결정에 참여한 이사회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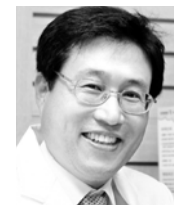
제86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7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서형연 교수의 '고령의 척추질환 예방과 치료'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7일 제86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고령의 척추질환 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열릴

니다. 강사는 정형외과 서형연 교수로, 이번 강좌에서는 고령 환자에 많은 척추질환 중 특히 골다공증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예방과 치료에 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소개됩니다. 강의 내용은 오는 30일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 주 제: '고령의 척추질환 예방과 치료'
- 강 사: 서형연 정형외과 교수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
-척추 전문진료

- 일 시: 11월 27일(금) 오후 2시
- 장 소: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2014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창조경제의 원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모두 모두 모셔라!
우리 함께 희망을 나눠 가져요!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은 소상공인 공동 이익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원이 2014년 1월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란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영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소상공인간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사업추진을 실행하는 협동조합

* 소상공인이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를 지칭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사업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 및 등기를 완료한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지원 제외 대상)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및 직영점·가맹점(단, 가맹본부가 조합인 경우 예외)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및 범위
공동정소입자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임차비용
공동설비	•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공동R&D	• 공동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공동브랜드	• 공동으로 사용하는 브랜드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비용
공동마케팅	• 판로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광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공동네트워크	• 홍보·광고 목적인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공동구매	• 정책자금 및 민간 금융 연계 등을 통한 공동구매 비용 지원

■ 모집기간: 2014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홈페이지 공지)

* 위의 지원내용은 '14년 지원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 및 협업화사업관리시스템에 공지

☎ 문의전화: 전국공통 1588-5302

☞ 홈페이지: [소상공인진흥원] www.seda.or.kr [협업화사업관리시스템] coop.seda.or.kr

